

# 광양만권 입주기업 매출·수출·사업체 증가 ‘잘~ 나갑니다’

2024년 매출액 전년비 6.6% 늘어난 19조원...전국 평균 3배 넘어  
수출액 25.6% 증가한 1조2591억·사업체 수도 5.6% 늘어 739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매출과 수출, 사업체 수 등 주요 지표가 전년 대비 일제히 증가하며 전국 경제자유구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근·이하 광양경제자청)은 2024년 기준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광양만권 입주기업의 총매출액이 18조993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7조8254억 원 대비 6.6% 증가한 수치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평균 매출 증가율 2.0%의 세 배를 넘는다.

수출 실적은 더욱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광양만권 입주기업의 수출액은 1조2591억원으로, 전년 1조22억원 대비 25.6% 증가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평균 수출 증가율 10.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광양만권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체 수도 꾸준히 늘었다. 광양만권 내 사업체 수는 2024년 기준 739개로 전년 702개 대비 5.3%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4.4%를 웃돌았다. 이를 통해 광양만권이 안정적인 산업 기반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전략적 투자 거점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투자자 고용 지표 역시 증가 흐름을 유지했다. 2024년 투자액은 1조1233억원으로 전년 1조233억원 대비 9.8% 늘었고, 고용 인원은 2만1662명으로 전년 2만755명 대비 4.4% 증가했다. 다만 투자액과 고용 증가율은 전국 평균(투자 14.4%, 고용 8.8%)에는 다소 미치지 못해, 향후 신산업 중심의 대규모 앵커기업 유치와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연계한 전략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2025년 5

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며, 광양만권 내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와 1인 이상 외국인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현황, 고용, 매출, 경영 실태 등 총 5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구충근 광양경제자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우주·항공 산업 등 미래 성장 산업과 세풍산업 이차전지 소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입춘에 홍매화 꽃망울 ... 산 너머 봄이 오네



입춘을 이틀 앞둔 지난 2일 광양시청 앞 미관광장 매화동산에 홍매가 개화해 밤 사이 내린 눈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광양시 제공>

## 고흥의 숨겨진 매력 ‘SNS 명소’ 100곳 발굴한다

20억원 투입 문화·역사 스토리텔링...인스타존 조성해 인지도 확대

고흥군이 사진·영상 중심의 SNS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흥 핫플 관광지 인스타존 100개소 발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고흥군 주요 관광지와 관광객 유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감성적인 촬영이 가능한 인스타존을 조성해, 관광객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온라인 홍보 효과를 창출

하고 고흥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0억원 규모로, 사업 대상지는 읍·면별 주요 관광지와 자연경관, 문화·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 등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공간을 우선 발굴한다.  
2026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7년 20개소, 2028년 이후 70개소 등 5년간 총 100개소를 순차적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군은 읍·면별 사업 대상지 발굴과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차별 최종 대상지 선정

을 거쳐 인스타존 설계와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단순한 포토존 설치를 넘어 지역의 특성과 공간의 매력을 반영한 디자인과 촬영 포인트를 적용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인스타존 발굴 사업은 고흥 곳곳에 숨겨진 매력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SNS를 통해 확산되는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창출하고, 고흥을 대표하는 새로운 핫플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새콤달콤 ‘순천 참다래’ 캐나다 첫 수출길

11t 출하 상차...일본 외 첫 수출

순천시가 지난 3일 순천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2026년 순천 참다래 캐나다 첫 수출 기념 상차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상차식에는 순천시를 비롯해 전남도청 국제협력관,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캐나다로 수출되는 순천 참다래는 11t(약 6000만 원 상당)이며, 일본 외 국가로의 첫 수출 사례이다.  
순천 참다래는 매년 200t 이상 일본으로 수출되는 대표 효자 품목으로, 순천 낙안·별랑·해룡·서면에서 생산된다.  
출하된 참다래는 순천시거점산지유통센터(APC)에서 공동 선별·출하 과정을 거쳐 고품질 농산물로 해외 시장에 공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상차식은 단순한 수출



개시 행사가 아니라, 북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해외 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소상공인 상담부터 지원 서비스 ‘원스톱’

여수시, 지원센터 개소

이달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가 지난 2일 여수상공회의소 강당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여수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100여 명

이 참석했으며 센터 소개, 감사패 수여, 현판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부터 각종 지원 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통합 지원 창구로 운영된다.  
센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지원 절차를 통합해 행정 안내, 정책 연계, 경영 컨설팅

등 단일 창구에서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같은 건물에 함께 입주해 있어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공간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현장 중심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 자영업 생태계가 한층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환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구례군, 소득작목 전문가 양성

농업인대학 교육생 27일까지 모집...매실·두릅 등 토양관리 등

구례군이 전문농업 인력 양성을 위해 ‘제18기 구례군 농업인대학 소득작목반’ 교육생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소득작목반 교육은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작목별 재배기술 향상과 안정적 소득 창출을 목표로 3월부터 10월까지 총 23회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구례 주요 작목인 매실, 두릅, 고사리, 쑥부쟁이, 블루베리, 사인머스켓 등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과 토양관리, 미생물의 이해 등 농업인이 알아야 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육성은 농가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 요소”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대상은 구례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영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이며, 전체 교육시간의 75% 이상 출석 시 수료 자격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780-2079)에 문의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 보성군, 농기계 전문자격증 실용 교육

굴착기·지게차·드론 교육비 50% 지원...11~13일 교육생 모집



보성군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굴착기·지게차·조경람비행장치(드론) 3개 기종에 대한 자격 취득 교육을 모집한다.  
해당 교육은 농업 현장의 기계화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농기계 사용에 대응해, 전문자격이 필요한 농기계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모집 인원은 총 55명으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굴착기 또는 지게차) 40명, 조경람비행장치(드론) 조종자 1종 15명이다.  
교육 대상은 보성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농업인(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으로, 신청 시 교육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굴착기 및 조경람비행장치(드론) 과정은 2종 보통 이상, 지게차 과정은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11일 오전 9시부터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모집 인원 총인원 시 마감된다. 신청은 본인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1인당 1과정만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관내 농기계 교육기관에서 법정 교육 시간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며, 11월 30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운영팀(061-850-5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전문자격 취득 지원은 농업인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계화 영농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굴착기·지게차), 조경람비행장치(드론) 조종자 1종, 로우더 등 총 464명의 농업인이 농기계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기계화 영농 확산과 농작업 안전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오고 있다.  
/보성=김용복 기자 kyb@kwangju.co.kr

## 곡성군, 명절 앞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전통시장·터미널 등...방화시설 안전관리·비상구 확보 등

곡성군이 지난 1월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군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곡성군과 곡성소방서, 민간전문가로는 ㈜태광건설, ㈜효성엔지니어링(주)대한구조기술단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내설 있게 진행하였으며, 점검 대상은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2개소, 터미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대형마트 1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상태, 비상구 확보, 전기 시설의 작동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건축물 균열, 손상 누수 등이

다.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시설물 관리주체에 직접 설명하여 명절 연휴 전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화재 취약 요소와 가스·전기 설비의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살펴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또, 점검 결과 접지선 미설치 및 피난 탈출구의 물건 적재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박승국 기자 psk8210@kwangju.co.kr